

제지업계, CEO 해외 마케팅 '활발'

제지업계 수장들의 해외 마케팅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한솔제지 선우영석 부회장은 지난 4월, 미국과 캐나다를 방문해 해당지역 현지법 인들을 둘러보고 북미시장 공략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과 미국 수출비 중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환율문제를 적극 대처할 것도 지시했다. 아울러 지난 5월에는 중국 닝보 등을 방문해 현지 시장 조사에도 직접 참여했다. 또한 한솔제지의 백판지 판매가 중국시장의 급성장으로 향후 어려움에 처할 것으로 판단, 이번 중국 방문 때 백판지 공급 동향과 중국 투자 가능성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무림제지의 이동욱 회장도 지난 5월말, 지난해 합작 투자한 중국 장시 첸밍제지 현장에 2박3일 일정으로 방문했다. 실질적 경영을 맡고 있는 김인중 대표가 여러차례 공장을 방문했지만 이 회장이 현지를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첸밍공장은 지난 5월9일부터 시험가동 차원에서 신문용지를 생산하다가 이 회장 방문에 맞춰 초경량아트지(LWC) 시험생산에 들어갔다. 이 회장은 제품이 본격 생산에 돌입하면 다시 방문할 예정이다. 올해 신호제지 사령탑을 맡은 뒤 해외 각국을 누비고 있는 김종곤 대표도 최근 미국에서 열린 도매상 협력모임에 참석해 거래처 관리에 들어갔다. 신호제지는 매년 한차례 국내에서 수출을 담당하는 무역상과 미국지역 도매상을 상대로 협력모임을 갖고 있다. 평소 이 행사에는 신호제지 지사장이나 영업본부장급 임원이 참석해왔으나 이번에는 고객사를 챙기기 위해 김 대표가 직접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솔제지, 대졸신입사원 하계수련대회 개최



한솔제지는 최근 지리산에서 2005년 대졸신입사원 하계수련대회를 가졌다. 행사관계자는 "계열사 공채 14기 35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리산 성삼재에서 천왕봉, 백무등을 중추한 수련대회에서 신입사원들은 상호간 우애를 다짐함은 물론 한솔인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슴에 새겼다"고 밝혔다. 또한 "새천년들어 처음으로 천왕봉을 허락해 준 지리산이 마치 창립 40주년을 축하해주는 것 같아 각별한 지리산 등정이었다"고 전했다.

한솔제지, 전 사원 교육 실시

한솔제지는 지난 5월20일 양재교육문화회관에서 조직활성화의 일환으로 본사 임직원 1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 사원 교육을 가졌다. 이번 행사에서는 '총각네 아재가게 아저씨'의 주인공 김영한 강사가 참

석, 고객에 대한 영업사원 마인드 교육과 한발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서비스 교육을 진행했다. 또한 오후에는 '고객사랑', '하나되는 우리' 등의 카피문구를 도미노로 표현하는 도미노 쌓기 행사를 가졌다. 이날 진행된 대부분의 교육은 개인이 조직에 있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고 상하관계의 끈끈한 우정과 고객사랑 감동을 동시에 일깨워주는 내용으로 꾸며졌다. 참가자들은 "도미노가 하나하나 쓰러질 때마다 울려 퍼진 함성과 열기는 결코 잊지 못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솔제지, 브랜드 사랑 캠페인 뜨거워

역삼동 한솔제지 본사에 가보면 문 입구에서부터 회의실까지 곳곳에 한솔제지 제품 브랜드 HI-Q, 매직시리즈, 오로, 이매진 등을 발견할 수 있다. 한솔제지 직원들이 브랜드 사랑 운동의 일환으로 '브랜드 name 아낌없는 사랑'이라는 주제 아래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캠페인에 따라 본사 전체 회의실은 한솔의 대표브랜드 'HI-Q실'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됐으며 고객만족과 품질향상을 위해 열띤 논쟁이 벌어지는 각 회의실은 '매직룸', '오로룸' 등으로 불린다.

신무림제지, 김인중 사장 출현 포스터 '화제'



신무림제지 김인중 사장이 파격적인 모습으로 사내 포스터 모델로 나와 화제다. 현재 신무림제지는 글로벌 선진경영시스템 구축을 위해 P(Process Innovation : 경영혁신)를 진행 중에 있으며 김 사장은 P의 핵심 부문 중 하나인 변화관리 포스터에서 스포츠룩을 입고 스케이트보드를 타는 모습으로 파격 변신했다. 전통 굴뚝산업인 제지업계에서

사장이 포스터 모델로 나선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김 사장은 포스터를 통해 '발전을 위한 변화라면 못할 게 없다', 'P의 성공을 위해서는 머리에서 발끝까지 모두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직접 보여줬다. 또한 김 사장은 이와 관련 "문제점은 질책의 대상이 아니라 희망"이라며 "다 함께 새로운 문제점을 집요하게 찾아 개선해 나가자"고 밝혔다. 한편 김 사장의 파격변신에 대해 직원들은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백발백중으로 불릴 정도로 일에 있어 철두철미하고 다소 차가운 이미지로 다가온 사장님인 만큼 금번 포스터를 통해 P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다"고 전했다. 신무림제지는 전사적자원관리(ERP)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지난해 말부터 P를 진행 중에 있으며 총 100억원 이상을 투자하는 P를 통해 기존의 시스템과 문화를 혁신, 선진경영 시스템을 구축하고 데이터에 근거한 사업계획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

해 리가 끝나는 2년 후면 현재의 이익 규모보다 30%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무림제지 · 신무림제지, CEO와 함께하는 '변화day, 맛있day' 행사 개최



무림제지와 신무림제지는 지난 5월23일부터 총 9회에 걸쳐 본사와 무림제지 대구공장, 신무림제지 진주공장에서 CEO와 직원들이 함께하는 '변화day! 맛있day!'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현재 사내에서 추진 중인 P프로젝트에 대한 전직원의 이해도 향상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마련됐으며 김인중 사장은 P프로젝트 추진현황 및 비전에 대해 설명하고 그에 따른 직원들의 질의에 응답했다. 본사는 영업부문과 지원 부문을 세 파트로 나눠 낮 12시부터 1시간 30분 동안 사내 리프레시룸에서 CEO와 직원들이 함께 점심식사를 하는 도시락 미팅의 형태로 진행됐으며 대구공장과 진주공장은 3교대 근무의 특수성을 감안해 각 공장별로 3회씩 다과회로 진행했다. 이번 행사에 참석한 직원들은 "행사 종료 후 사내 피계시판에 행사 참석후기와 함께 P추진에 대한 각자의 각오를 다지고 김인중 사장과 P추진팀에 바라는 점 등을 적어 놓는 등 그 열기가 뜨거웠다"고 입을 모았다.

신무림제지, 박시한 부소장 기술상 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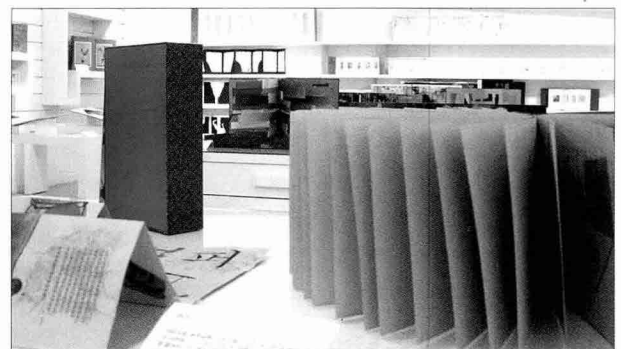
박시한 신무림제지연구소 부소장은 최근 한국펄프종이공학회로부터 기술상을 수여했다. 또한 이번 시상식에서는 지난 3월 퇴임한 이원수 전 부회장이 공로상을 수상해 의미를 더했다. 한국펄프종이공학회는 매년 학술논문발표회와 국제세미나, 제지기술자 정기교육 및 총괄교육

등을 개최하고 있으며 지난해 한국학술진흥재단의 등재학술지로 선정된 「펄프종이기술」도 발행하고 있다. 특히 2006년 6월에는 Pan Pacific Conference를 개최함으로써 국내뿐만 아니라 태평양주변국과 더불어 제지기술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한국펄프종이공학회는 펄프 및 제지기술 발전에 공헌한 바가 크고 제지기술 발전을 위해 힘쓴 사람을 대상으로 수상자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신호제지, 첨단 비닐 종이 개발

신호제지(대표 김종곤)가 최근 알로에, 은나노를 함유해 부패와 세균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웰빙 식품용지'를 개발해 특허출원을 마쳤다. 기존의 라면, 스낵 봉지는 비닐과 은박지로 만들어져 환경오염의 원인이 됐지만 이번에 개발한 포장재는 재질이 종이로 환경보호에도 큰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김용식 신호제지 중앙연구소장은 "얇은 백상지를 주원료로 식품과 닿는 부분에 알로에를 넣고 포장재 중간에 항균을 위해 은나노를 첨가했다"며 "습기와 물에 약하고 차광성이 부족한 종이의 단점을 특수 방식·코팅 처리로 완전히 해결해 냈다"고 밝혔다. 김소장은 특히 "기존의 햄버거나 빵 포장지도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며 "모든 재료가 쉽게 분해되기 때문에 환경오염 염려가 없고 100%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호제지는 이 제품개발을 위해 6개월 간 약품회사들과 공동연구했으며 가격도 기존 라면봉지와 큰 차이가 나지 않도록 공급할 방침이며 두꺼운 백상지를 활용한 커피컵이나 식품용기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신호제지는 이번 웰빙 식품용지 개발을 계기로 고부가가치 제품개발에 적극 나서 기존 제지업체들간의 경쟁을 최소화하면서 신규사업 진출에 박차를 가한다는 전략이다.

두성종이, 이명숙 북아트전 개최



두성종이는 지난 5월30일부터 6월30일까지 사옥 1층 페이퍼갤러리&샵에서 이명숙의 아홉 번째 북아트전 'Simply Fly'를 개최했다. 두성종이 관계자는 "북아트는 예술적 측면뿐만 아니라 결혼앨범이나 어린이의 성장 기록집, 다이어리 등 상업적 측면으로도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며 "최근에는 경제적 가치에 대한 인식 변화와 함께 실용성과 경제적 측면에서도 부각되며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전시기간 동안 전시장을 찾은 관람객에게는 북아트 팸플릿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차이나이스 바인딩 노트가 제공됐다.